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7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5월 31일(금)

## ‘미래의 양반’을 청송 한마음대회로 초대합니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준비로 바쁜 심대평 대종회장 인터뷰

흔히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학적도 위조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위조할 수도 없는 게 딱 하나 있다. ‘핏줄’이다. ‘핏줄’의 생물학적 집합체가 성(姓)이고, 성을 사회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이 대종회다. 그렇지만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정작 대종회에 별 관심이 없다. 삼한갑족이라는 청송심씨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 볼 수는 없을까. 5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찬경회관에서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준비로 바쁜 심대평 대종회장을 만나봤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라는 울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청송심문의 뿌리의식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심문과 국가의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비록 하루 행사지만 과거의 영광과 전통을 미래의 자산으로 이어가는 중요

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10월 5일(토)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소헌공원(찬경루)에서 열린다.

**참가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송심씨와 외손 등 3000명 참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손을 잡고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외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조손(祖孫)하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름답다. 그러나 3000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대평 회장은 넉넉히 속내를 밝혔다. “젊은이가 1000명만 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렵니다.”

대회는 오전에 소헌공원에 모여 시조묘소로 걸어가 추향(秋享)을 올린 뒤, 다시 소헌공원으로 돌아와 다양한 이벤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벤트라고 하면?**



“장학금 수여, 연예공연, 뿌리교육, 명사들의 멘토, 해외일가 소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나 젊은이가 더 좋아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일가분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종회 사무실(02-2267-7857, 팩스 02-2269-7755)로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3면에 계속〉

## 2019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 일시 : 2019년 4월 12일 오전11시30분

◎ 장소 : 성균관컨벤션웨딩홀 연회장

대종회는 전국에서 235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재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송조돈목과 봉사정신으로 대종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한편,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1)장학재단 설립 2) “청송심씨한마음대회” 개최 3) 모바일 홍보 운용 활성화 등을 보고하고, 전년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같은 날 개최한 이사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주요 의결사항

부의안건	의결내용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원안대로 의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정관 일부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1) 부회장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려 대종회의 중추적 의결기관인 회장단 회의를 보강함(제7조)
	2)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예우함(제8조3항)
	3) 회장 유고시 회장단 회의에서 보선하던 것을 총회에서 보설토록 함(제8조4항)
	4) 이사를 지파총회 추천을 받아 선임도록 함(제8조5항)
정관 일부개정안	5) 대종회 회장으로 보선될 경우라도 대표자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3년간 임기를 보장함(제9조2항)
	6)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명확히 하고, 회장이 직무를 태만히 할 수 없도록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앴(제10조4항)
	7) 대종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제23조1항3호)
	8) 재정·회계업무 관련 임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제28조5항)

부의안건	의결내용
임원 선출안	○ 부회장 선출 가) 당연직 부회장 (7명) 봉익공파(2세조), 악은공파(4세조), 도총제공파(5세조), 관사공파(5세조), 지성주사 공파(5세조), 인수부운공파(5세조), 안효공파(5세조) 총회 회장 등 7명은 금번 정기총회에서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함 나) 당연직 외 부회장(8명 이내) 나머지 8명이내의 부회장은 새로 선임된 회장단과 지파총회 및 대종회 회장이 협의하여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토록 함 ○ 감사 선출 (3명) 새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토록 함
장학재단 설립안	장학재단 설립안 원안대로 승인하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본 재산 5억 원은 대종회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의결

■ 유공자 표창 수상자

- 감사패 : 이준용 연천문화원장
- 표창패 : (연천)심덕보, (청송)심상암, 이사 심재봉 정랑공파총회 총무 심인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9)

# 인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 강(綱) 할아버지의 자식 이름 짓기



**심후섭 (沈厚燮)**

총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애야, 너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조선시대 봉당(朋黨)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의겸(義謙) 할아버지야. 그 무렵 의겸 할아버지는 이조전랑(吏曹銓郎)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계셨어.

조선 시대 벼슬 중 으뜸가는 자리는 정1품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이른바 3정승이었어. 그런데 이 3정승이라는 자리는 벼슬이 너무 높아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기가 쉬웠어.

그래서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등 이른바 삼사(三司)를 두었어. 삼사에서는 3정승을 포함하여 조정의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비판하여 바로잡는 역할을 했거든. 심지어 임금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상소를 올려 비판할 수 있었어.

그런 만큼 삼사의 자리에 오르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청렴하고 정직해야 했어. 또한 삼사의 자리를 거쳐야만 3정승이 되기도 쉬웠어. 그래서 집안에 삼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여겼어. 이처럼 어려운 삼사(三司)를 심사(審査)하고 뽑아 올리는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이었던 거야. 이러한 만큼 이조전랑은 품계는 비록 높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 게다가 자기의 후임도 정할 수가 있었어.

의겸 할아버지는 명종(明宗) 임금 때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홍문관 부수찬, 홍문관 교리, 홍문관 수찬, 병조정랑, 사헌부 지평 등 중요한 벼슬을 모두 지냈는데, 1563년에는 왕실의 힘을 업고 권세를 부리던 자신의 외삼촌 이량(李樑)도 탄핵하여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어. 즉 의겸 할아버지는 옳지 않은 일에는 분연코 일어났으므로 당시 사림(士林)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었어. 그리하여 사림의 영수로 대접받았어.

이러한 강직한 국정 운영으로 이조전랑에까지 오르게 된 거야. 그리하여 당시 벼슬아치들이 의

겸 할아버지의 강직한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그 뒤, 1582년 의겸 할아버지가 이조참의로 자리를 옮기고 새로 이조전랑을 뽑을 때였어. 이때 김효원(金孝元)이라는 사람이 추천되었어.

김효원은 조식(曹植)·이황(李滉) 등에게 글을 배워 1564년(명종 19) 진사가 되고, 1565년에는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만큼 글을 잘 하였어. 하지만 의겸 할아버지의 눈에는 차지 않았어.

그것은 의겸 할아버지가 공무(公務)로 당시 영의정이었던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갔을 때에 김효원이 그곳에서 기숙(寄宿)하고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 기숙은 남의 집에서 자고 밥을 얻어먹는 것을 말해.

윤원형은 중종(中宗)의 처남(문정왕후의 동생)으로서 권력을 많이 휘둘렀어. 그리하여 원망을 많이 받았고 죽은 뒤에는 역적으로 단죄되기까지 할 정도였어.

‘김효원이 글재주가 있다하여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권력에 아부하는 범부로군!’

이리하여 의겸 할아버지는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셨던 거야. 그리하여 김효원은 2년 뒤에야 간신히 이조전랑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곧 이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

이때에는 의겸 할아버지의 동생인 충겸(忠謙) 할아버지가 추천되었어. 그러자 김효원을 밀고 있던 신진사림파들이 의겸, 충겸 할아버지가 명종(明宗)의 비(妃)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인 점을 들어 반대하였어. 외척이 요직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

그리하여 의겸, 충겸 할아버지를 밀어주던 기성사림파와 맞서게 되었어. 이 때, 의겸 할아버지의 집은 서쪽인 정릉방(貞陵坊)에 있어서 서인(西人)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김효원의 집은 동쪽인 지금의 낙산 밑 건천동(乾川洞)에 있었기에 동인(東人)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그 뒤에도 여러 번 충돌이 있었어.

그러나 서인은 기호학과(畿湖學派)로 발전하고 동인은 영남학과(嶺南學派)로 발전하는 등 학문과 정책면에서 경쟁하는 관계를 이루며 서로 잘해하려고 애쓰기도 하였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바람직하게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러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 안타깝구나.

의겸 할아버지의 6대조는 세종(世宗)의 장인으

로서 영의정을 지내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온(溫) 할아버지였고, 5대조는 세조(世祖) 때 영의정을 지내신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회(澮) 할아버지였어.

또한 증조부는 사헌부 장령을 지내셨으나 뒷날 영의정에 증직된 순문(順門, 8세) 할아버지였고, 조부는 명종(明宗) 때 영의정을 지낸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연원(連源, 9세) 할아버지였으며, 아버지는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강(綱, 10세) 할아버지였는데 역시 뒷날 영의정에 증직되었어.

순문 할아버지는 강직하여 연산군 때에 직언을 서슴지 않다가 고문을 당하여 40세에 돌아가셨고, 연원 할아버지도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서 매우 강직하였어. 제주목사가 되어 왜구의 침입을 알고 미리 방비하였고, 뒤에 영의정에 올랐어. 강(綱)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역시 강직하여 자기의 처남이지만 세도를 부리자 아들 의겸과 함께 이량(李樑)을 몰아낼 정도였어. 또한 의겸 할아버지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와, 인품이 훌륭하여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왕으로 추존된 원종(元宗)의 장인인 구사맹(具思孟)과 사돈지간이었어. 그러니까 이름 높은 집안과 사돈을 맺었던 거야.

그런데 강(綱)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당시 유학의 가치 체계를 잘 살려서 지으신 듯 해. 여덟 아들을 두셨는데 우선 맏이의 이름을 인겸(仁謙, 11세)으로 지으셨어. 이 이름 속에는 인자하고 겸손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차례로 의겸(義謙), 예겸(禮謙), 지겸(智謙), 신겸(信謙), 충겸(忠謙), 효겸(孝謙), 제겸(悌謙)으로 지으셨어. 그리고 보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충효제(忠孝悌)를 차례로 붙여 이 이름과 같이 살아가라는 염원을 담으신 게 아닐까 해. 그리하여 이 이름만 보고도 몇 짜인지는 물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느끼게 하셨지. 또한 이름 끝 자(字)를 모두 겸(謙)으로 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거기에는 겸손(謙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덕목(德目)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참으로 우리 선조들은 깊은 생각으로 삶을 꾸려 오신 것 같구나.

우리도 선대에서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구나.

(다음호에 계속)



上:순문(順門 사인공) 下:연원(連源)



익호공 강(綱)



익호공신도비

<1면에서 계속>

**대회의 성패는 역시 준비에 달려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지파총회에 협력을 구하고, 대학생 홍보와 해외일가 초청 등을 통해 축제분위기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사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와 실무추진단도 곧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대평 회장의 입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 지금이 2년차인데, 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다. 장학재단설립이다.

**장학재단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대총회의 장학금 지급방식은 지파총회와 거의 차이가 없고, 지급대상도 별로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의 지급방식은 지파총회가 하면 되는 것이고, 대총회는 다른 차원에서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려면 장학재단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평 회장이 그리는 장학금 지급방식은 지금까지의 ‘소액다수’에서 ‘소수다액’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서 ‘특정 분야의 영재’로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의미있는 변화다. 지금까지는 5000만 원을 50명의 평범한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줬다면, 앞으로는 5000만 원을 5명의 영재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지요.**

“발상의 근저에는 앞으로는 특수한 영재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런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심문의 명예를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철학이 깔려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한 양반’이 가문을 이끌고 국가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특정 분야의 영재가 ‘미래의 양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송심문이 지금껏 해온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의 현대적 해석이라고나 할까요.” 대평 회장은 “과거의 영광을 꺾듯 빼먹고 사는 심문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새롭게 창출하는 심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영재 선발 분야는 생각해 봤나요.**

“아주 다양하겠지만, 음악, 스포츠, 연예, 기능, 그리고 학문 중에서도 게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선발 시기는 대학생은 너무 늦고, 중학생은 너무 빠를 것 같아 고교 1학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 두명이라도 제대로 돕고 싶습니다. 수혜대상에는 외손도 들어갑니다.”

**장학재단도 역시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장학재단설립과 그에 필요한 최소비용 5억 원은 지난번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장학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방향설정과 정관마련 등 기초작업도 마

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율이 높지 않아 이자만으로는 재단운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파총회나 기업인, 독지가 등을 만나 기부와 출연을 간곡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뜻있는 종인이 영재 1명을 맡아 장학금도 지급하고 종종 상담도 해주는 ‘1대1 멘토 장학제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인이 장학재단에 적극 참여해 주길 정말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파총회 얘기가 나온 김에 임원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임의로 부회장을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지파총회장 7명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이들 당연직 부회장들과 협의해 지역안배로 8명 이내의 다른 부회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부회장 정수도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렸다. 이상은 모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부회장 선출방식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네요.**

“대총회를 회장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총회가 합심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총회를 ‘회장단 중심 합의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각 지파총회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리면 다른 종인들도 대총회를 믿고 따라올 것이고, 정책의 실행력도 나아질 것입니다.”

당연직 부회장은 봉익공과, 악은공과, 도총제공과, 판사공과, 지성주사공과, 인수부운공과, 안효공과의 회장이 맡는다. 그동안 종회장이 아닌 사람이 대총회 부회장을 맡는 경우도 있어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책임소재의 충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대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총회에서는 재정 회계 부정사건으로 사라진 2억 3400만원도 손실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당사자 2명이 사망해서 소송을 계속할 실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대평 회장으로서는 취임 당시 “대총회의 화목과 화합을 이루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평 회장이 대총회를 운영하는 키워드는 젊음이, 미래, 협업(콜라보레이션)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화, 파편화하는 요즘 세상에 ‘핏줄’을 앞세우는 게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또는 집단이기주의는 아닌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평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요즘 세태가 개인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떤 조직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가족, 회사,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의 일원입니다. ‘핏줄’도 그런 조직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옳지 않습니다. 청송심문은 다른 조직과의 공존을 전제로 우리 일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알파’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청송심문의 품격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리=심규선(인터넷) 정보편집위원장

# 망세정공재각 준공(忘世亭公齋閣 竣工)

망세정공은 청송인으로 휘 선(諱 璿) 자는 윤부(潤夫)이며, 호(號)는忘世亭이다. 양혜공(良惠公 諱 石菴)의 아드님으로 祖는 인수부운공(人壽府尹公 諱 澄)이며, 曾祖는 정안공(定安公 諱 德符)이다. 1435년(世宗十七年) 乙卯에 進士에 壯元하고 가평군수, 강릉부사를 역임하였으며, 그후 判事를 거쳐 공조참의와 검지중추원사(檢知中樞院事)를 역임한 후 경기관찰사를 거쳤으며 중추원부사로 재직 시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후 황해도 관찰사로 제수되었고 嘉靖 大夫에 加資되었으며 또한 경연에 소속되는 등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단종(端宗)이 손위(遜位)하였을 시에는 벼슬을 버리고 양주 풍양(楊州 豐壤)으로 내려가 정자를 지어 忘世亭이라 하였다.

生年은 未傳이나 1468년 9월 26일 60이 못

되어 돌아가시니(朝鮮朝實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하였다.

‘동국문헌명신편’에는 丙子 1456년에 魯陵을 위해 장절하고 호를 망세정이라 하고, 세조조에도 누차 벼슬하기를 청 하였으나 불기

하였다.

지난 4월 27일에는 경기도 양지리 망세정공묘소에서 전국의 후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세정공(諱:璿) 선조님의 제향행과 재각준공식이 있었다.



재각준공식

### 2019年 己亥年 春享祭 奉行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郎公(諱 洪孚) 春享奉行 2019년 04월 06일(寒食)		閻門祇候公(諱 淵)春享奉行 2019년 04월 15일(음3월 11일)		靑華府院君公(諱 龍) 春享奉行 2019년 04월 17일(음력 03월 13일)	
始祖		閻門祇候公		靑華府院君公	
配位		配位		配位	
▶初獻	상현(相賢)	▶初獻	대평(大平)	▶初獻	상현(相賢)
▶亞獻	상국(相國) 우구(優求)	▶亞獻	상직(相直) 재룡(載龍)	▶亞獻	재구(載求)
▶終獻	진호(珍浩) 양섭(陽燮)	▶終獻	상홍(相弘) 한섭(漢燮)	▶終獻	홍섭(弘燮)
▶大祝	홍섭(弘燮)	▶大祝	양섭(良燮)	▶大祝	상홍(相弘)
▶執禮	상철(相哲)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靑華府院君配位金氏 春享奉行 2019년 04월 17일(음력 03월 13일)		靑城伯(諱 德符) 春享奉行 2019년 04월 19일(음력 03월 15일)		靑城伯 配位 靑州宋氏 春享奉行 2019년 04월 21일(음력 03월 17일)	
靑華府院君配位金氏		靑城伯		靑城伯 配位 靑州宋氏	
配位		配位仁川門氏		配位	
▶初獻	무섭(武燮)	▶初獻	대평(大平)	▶初獻	재현(載賢)
▶亞獻	성보(聖輔)	▶亞獻	상현(相賢)	▶亞獻	세택(世澤)
▶終獻	영택(英澤)	▶終獻	재구(載求)	▶終獻	재봉(載奉)
▶大祝	홍섭(弘燮)	▶大祝	홍섭(弘燮)	▶大祝	상홍(相弘)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支·派宗會 主管 享祀

岳隱公(諱 元符) 春享奉行 2019년 04월 29일(음력 03월 25일)		五世祖 都摠制公(諱 仁鳳)春享奉行 2019년 04월 21일(음력 03월 17일)		六世祖良惠公(諱 石雋)春享奉行 2019년 04월 24일(음력 03월 20일)	
岳隱公(諱 元符)		都摠制公		良惠公	
配位		配位		配位	
▶初獻	재대(載大)	▶初獻	상현(相賢)	▶初獻	정구(鼎求) 찬구(贊求)
▶亞獻	우영(宇永) 낙섭(樂燮)	▶亞獻	재룡(載龍)	▶亞獻	상열(相烈) 형찬(炯燦)
▶終獻	규정(揆政) 영수(泳秀)	▶終獻	종혁(鍾赫)	▶終獻	기성(基成) 장식(長植)
▶大祝	능광(能光)	▶大祝	상홍(相弘)	▶大祝	상홍(相弘) 상홍(상燮)
▶執禮	홍섭(弘燮)	▶執禮	상호(相昊)	▶執禮	재구(載求) 재구(載求)

六世祖恭肅公(諱 滄) 春享奉行 2019년 04월 09일		昭憲王后(世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9년 04월 28일		仁順王后(明宗大王妃) 春享奉行 2019년 04월 07일	
初獻 大平		昭憲王后(世宗大王 妃)		仁順王后(明宗大王妃)	
▶亞獻	도섭	▶亞獻	재천(載天)	▶亞獻	상홍(相弘)
終獻	승수				

### 2019年 己亥 春享 獻誠金 내역

獻誠金 接受 內譯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始 祖 (청송)	도총제공종회	200,000	대구종회	200,000	四世祖 (연천)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철원봉익공종회	200,000	부산종회	100,000		인수부윤종회	300,000	<b>합 계</b>	<b>700,000</b>
	광주부윤공과 선산종회	200,000	(예천)재근 외	100,000	四世祖 配位 (청주)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울산내금위종회	200,000	<b>합 계</b>	<b>1,200,000</b>		(인천)재석	50,000	<b>합 계</b>	<b>550,000</b>
二世祖 (함열)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四世祖 壇 (청송)	악은공 회장 동섭	1,000,000	악은공 총무 광섭	2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현령공 경남종회	200,000		서울 악은회	200,000	(진주)재화	100,000
<b>합 계</b>				<b>900,000</b>		우영 고문	100,000	(산청) 용태	100,000
三世祖 (안성)	도총제공종회	100,000	대전, 세종, 충남종회	200,000		(경기) 극택	200,000	(서울) 육섭	1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당진종회	100,000		대구종회	200,000	(영양) 경보	50,000
	안효공종회	300,000	<b>합 계</b>	<b>1,000,000</b>		규철	100,000	<b>합 계</b>	<b>2,350,000</b>

# 최초의 소식지 <靑松報청송보(55~57년 간행)> 전질(총 22집) 발견 !



**심재석**  
총보편집위원  
문학박사

◆ **감격** : 『대중회 40년 약사』(2011)에는, 돈목회 소식지 『靑松報청송보』 총 21집 중, 8권의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나머지 13권은 찾을 수 없어서 게재치 못한다고 통탄하였다(68쪽, 314쪽). 최근 필자는 돈목회가 발행한 『청송보』 전질 22권(1955~1957년)을 고서점에서 구입하였다. 이번 발견으로 초기의 소식지가 21권이 아니라 22권이었다는 사실과 여러 가지 궁금했던 초기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대중회 40년 약사』를 편찬 할 때 찾지 못했던 『청송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조상님의 음덕이 아닐 수 없다.

◆ **특이한 자료 소개** : 『청송보』 9집(1956.4)에는 일제 강점기에, 간도에서 심씨 112명이 모여 친목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이 적혀있다. 이는 청송 심씨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 보아도 중요한 기사일 것이다. 중요한 자료이기에 <간도 심씨 문화 회칙靑島沈氏門會會則>과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숙공의시> 한 수를 본고 말미에 옮겨 적는다.



**심상용**

◆ 『청송보』 편집인 **심상용 沈相龍** 은 : 1914 간도 용정 출생, 1934 간도일보 기자, 1945 독립군 군자금 지원 사건으로 구속 중 해방, 1946 중국동포구제회 결성, 1954 동양 물리요법 연구소 설립, 청송보 편집과 『정유보』 편찬에 주력, 1972 <약이 되는 자연식>을 저술하는 등 문학적 능력과 한방에 일가견을 가진 유능한 인물이었다. 초기 청송 심씨 돈목회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청송보』의 전체적인 특징

- 1) 펜으로 써서 등사해 묶음(9집만 활자본임)
- 2) 심상용 씨가 주도적으로 이끔
- 3) 연도를 단기(機紀)를 씀
- 4) 4집은 청색 잉크로 등사함
- 5) 한시(漢詩)가 다수 실림, 지금은 보기 힘든 회갑(回甲) 축하 시도 많음
- 6) 해방 후 어렵던 시절에 전국의 청송심씨 소식을 알려주는 유일한 소식지였음
- 7) 16집부터 '靑松報' 라는 제자(題字)를 붓글씨로 씀
- 8) 발행 주체는 1~18집 <돈목회(敦睦會)>, 19집 <찬경회(贊慶會) 총무부와 대동보편찬위원회>, 20~22집 <청송보간행위원회>로 바뀜
- 9) 1~22집의 전체 쪽수를 합하면 640쪽 정도임

◆ 『청송보』 1~22집의 표지 · 특징 · 주요 내용

1집 	· 간행 : 1955.7 · 발기총회 회의록 · 기금조달방명(1)	2집 	· 항렬대조표 · 대동보 발간은 · 만사공 산소 문제
3집 	· 파주, 창섭씨 위토제공 · 5처산소 위토 목록(1) · 이조 왕후 심씨	4집 	· 유일하게 청색 잉크 등사 · 경섭 씨 위토 제공 · 반가운 소식
5집 	· 찬경루 약사 · 5처산소 실기(1) · 심언봉 공적찬양문	6집 	· 청송심씨파계표(1) · 종약창립총회록 · 우리심씨의 가장
7집 	· 몽치자 돈목회로 · 위토를 보존하자 · 각대학 학생 명록	8집 	· 찬경회 재단기금 · 부산중친회 창립자 · 종중소식
9집 	· 유일한 활자본임 · 찬경루 중수기 · 간도심씨문화회칙	10집 	· 대동보 편찬안 · 사현사우 구암사(龜岩祠) · 돈목회 소식을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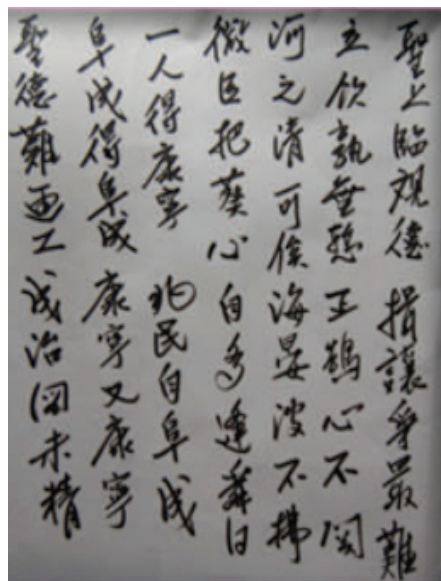
11집 	· 1회 정기총회 개기(概記) · 돈목회 총복지부 역원 · 청송심씨 돈목회 회칙	12집 	· 대동보편찬위원회 위원 · 14차 월례회 · 대전화수회 3회 정기총회
13집 	· 만사상공의 행적 · 대동보 수단에 대한 질의 · 임원의 각성을 촉망(促望)	14집 	· 돈목(敦睦)과 의무(義務) · 찬경재단 기금 납입자 · 대동보 간행 출판비는?
15집 	· 대동보편찬위원회대회 · 청화부원군 향사 · 인수부원공파위토	16집 	· 제자(題字)-붓글씨로 · 두실상공 행적 · 연천산소 안전
17집 	· 題字- 초서체로 · 문충공의 행적 · 종중 토막 소식	18집 	· 정기총회소집통지서 · 애암공 행적 · 찬경회 회칙안
19집 	· 청송심씨 첨증(鎭宗)에게 통고함 · 대동보 납단 내역 · 찬경회 학생부 아우회	20집 	· 대동보에 대한 지시사실 · 임원 제위에 고함 · 청송보 간행위원회
21집 	· 대동보에 관한 지시 · 대동보 첫권을 발간하면서 · 남당산 종란약사(宗亂略史)	22집 	· 천식(天澁)파지계손 相權씨 서신 · 대동보합작결렬 비판 · (청송심씨)대학 합격자

◆ 자료(1) <간도 심씨 문화 회칙靑島沈氏門會會則> 『청송보』9집(1956.4.5)

이 회칙은 戊辰年(29년 전) 2월에 발기 되어 작성된 귀중한 유문(遺文)으로서 이것을 보면 고향을 떠나 타국(他國)〈滿洲〉에 까지 가서 그리운 종족(宗族)을 못 잊어 서로 돈목(敦睦)을 도모(圖謀)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이었다고 또한 우리의 자량이 안일 수 없어서 참고로 발표하는 것이다(편집실). 참고 : 당시 가입 회원 수는 112명이었음.

- 제1조. 본회의 명칭은 간도심씨문중회(間島沈氏門中會)라 함  
제4조. 본회의 유지 방침은 매호 가입금 삼십전(每戶 加入金 三十錢)씩 구취(鳩聚)하여 본회의 적립금(積立金)으로하고 출리(出利)월리삼분(月利三分)로 함  
제9조. 문중(門中)에 상서(喪逝)가 有할 時는 左와 如히 부의(賻儀)함  
1. 문화자금 만 1장(門會長 : 錦輓 1章)  
1. 일반 문중인(門中人) : 양촉일봉(洋燭一封)  
제15조. 본 회원이 상서(喪逝)할 時는 其 長子가 상속회원(相續 會員)이 됨  
본회 발기(發起) 대표 : 滄澤, 昌濬, 相津, 寶翼

◆ 자료(2) <공숙공 심희(沈滄) 시詩>



공숙공 시

- 원본이 부실하여 심재석이 붓글씨로 옮겨고, 번역함.  
성상이 활쏘기에 임하셨는데 / 음양하며 활숨씨 겨루는 것 가장 어렵네 / 서서 마시는 벌주 누가 부끄럽지 않으리오마는 / 정곡에 마음 관여하지 않네 / 하수가 맑아지는 것 기다릴 수 있으니 / 바다가 평온하면 파도치지 않으리 / 미천한 신하 해바라기처럼 임금 향한 마음으로 / 태평시대를 만날 수 있어 자랑스럽다네 / 한 사람(임금)이 강녕할 수 있으면 / 만백성 질로 부성(阜成)하게 하리 / 부성하고 부성하여 / 강녕하고 강녕하여 / 성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 성대한 정치 그려도 정밀하지 못하네

종회 탐방

5세조 인수부윤공(諱 : 澄)파 종회 탐방



심정구

인수부윤공파종회회장  
4선 국회의원

**1.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는 1영상, 2부마, 현재 심사정 등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 대종회 갑택 문화이사님과 만나 송파구 거여동의 종회 사무실을 찾았다. 세장지가 수용되고 대토로 받은 장소에 우뚝 서 있는 종회 소유 건물의 6층에 아담하고 소박한 사무실이 있다. 도착하자 친구 부회장님과 재구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종인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조상님 묘소 사진에 묵념하고 종회의 여러 가지 업무와 역사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



망세정공 재각 준공식

에 출발하여 참석했습니다. 재각 준공식 때 정구(晶求) 회장님께서 “망세정공의 재각을 건립치 못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제야 풀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는데,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3. 인수부윤공 종중의 종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고문	沈完求	이사	沈鍾德
회장	沈晶求		沈駿求
부회장	沈贊求		沈求亨
	沈鎭植		沈春植
감사	沈鍾赫		沈長植
	沈大植		沈宗植
총무	沈載求		沈愚寬
재무	沈昌輔		沈揆華

**4. 인수부(仁壽府)란 무엇이며, ‘인수부윤’ 공의 행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인수부는 ‘세자시강원’으로 알려진 부서입니다. 세자와 관련된 전령·거마·의복·공궤뿐만 아니라, 토지·노비 등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인수부윤공의 행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원주 화산 인수부윤공 묘소

나이(서기)	주요 관직
1세(1371)	개성출생
20세(1392)	軍衛로 출사
23세(1395)	大將軍
46세(1418)	仁壽府尹
46세(1418)	무술옥사로 해남 유배 양혜공은 순천 樂安으로 유배
50세(1422)	해배되어 처가인 礪山에서 송씨 할머니와 여생보냄
59세(1431)	별세(4.17)

**5. 한 때 실전했던 인수부윤공의 묘소는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묘소가 실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01년, 만사상공 심지원의 손자 심정로 선조께서 은진현감으로 재임 중에 묘소를 찾아 개축하였습니다(《인수부윤심공정묘표》[高山誌]535쪽).

**6. 인수부윤공파의 계보는 :** 망세정공에서 무성한 황녕쿨이 번지듯이 삼한갑족의 큰 줄기를 이루며 도도히 흘러, 최근 명구 대종회장과 4선 정구 국회의원이 출현하였다.

**7. 후손록 :** 인수부윤공파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6세 - 양혜공 **심석준**(沈石皐, ?~?) : 심은 옥사에 연루되어 樂安으로 유배되었고 이후 중도부처 되었다. 호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용인 포곡읍 가실리에 모셔져 있다.



망세정공 묘역(상비하고)

2) 7세 - 망세정공 **심선**(沈璿, ?~1467)은 좌익원종공신에 봉해졌으며, 경기 감사 등을 지냈다. 풍양(남양주)에 정자를 짓고 산수와 음을 즐겼는데, 세상사를 다 잊었다는 뜻으로 망세정(忘世亭)이라 이름 붙였다.

3) 8세 - 병사공 **심안인**(沈安仁, 1435~1488) : 어려서 등과하여 명성이 혁혁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시고,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재임 중 서거하셨다. 직계 후손에 만사상공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4) 8세 - 靑城尉 **심안의**(沈安義, 1438~1476) : 묘소는 남양주에서 근래 포천으로 이장하였다. 세종대왕의 ‘부마’로 세종의 庶 1女 ‘貞安翁主’의 부군이다. 실록에 “심안의는 용모가 장대하고 아름다웠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세조가 그를 사랑하였다.”고 한다(〔성종실록〕7.3.17)

5) 8세-해주목사 **심안지**(沈安智, 1443~1498) - 곡성군 겸면 남양리에 제단비가 있다. 아들 도정공 沈淳이 처음으로 玉果十相村에서 살기 시작하여 ‘玉果沈氏’의 중시조가 되었다.

6) 9세 - 기묘명현 **심봉**(沈灔, 1482~1563) : 김식이 기묘사화에 연루될 무렵 그의 집에 이르렀을 때 체포되어 국문을 당하였고, 철산으로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 80세를 넘게 살았다.



심광원 묘소-남양주 양지리

7) 10세-장원급제 **심광언**(沈光彦, 1490~1568) : 1525년(중종 20) 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에 형조판서·우참찬 등을 지냈다. 권세와 재물을 즐기지 않았고, 직언을 잘하였다. 특히, 법률에 밝아 형정을 오랫동안 주관하며 송사를 바르게 처리하였다.

8) 10세 - 훈도공 **심광형**(沈光亨, ?~?) : 호는 제호정(霽湖亭). 광양, 곡성 등 여러 고을의 訓導를 지냈다. 만년에 곡성의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涵虛亭을 건립하였다.

9) 11세 - 내금위공 **심항**(沈滄, ?~?) : 미상.

10) 12세 - **심민겸**(沈敏謙, ?~?) : 호는 두암(杜菴). 임란 시 의병을 모집해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군량조달에 힘썼다. 정유재란 때도 공을 세웠으며,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근왕병을 모집하여 인조를 호종하였다.

11) 13세-울산교수공 **심환**(沈渙, 1545~1612) : 호는 逸庵. 임진왜란 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으나 功을 사양했다.

12) 13세 - **심민각**(沈民覺, ?~?) : 호는 龜巖. 이괄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자, 의병 및 家僮 100여 명을 거느리고 어가를 호종하였다. 병자호란 시 다시 의병을 일으켜 호서 지방을 지켰으며 뒤에 永柔현령에 제수되었지만 사퇴하였다.



경북 영천의 심지원 청덕비

13) 14세 - 영의정 만사상공 **심지원**(沈之源, 1593~1662) : 효종의 사돈으로 국가 경영에 헌신하면서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리고 익현이 효종의 부마가 되면서 왕실과 사돈이 되었다. 영의정으로 중책을 수행하신 후 院相으로서 효종의 國葬을 책임졌다. 저서 『晩沙稿』가 있으며,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사후 조선 최대의 산송(山訟, 묘지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후손 명구 대종회장의 결단으로 근래 완결되었다.

14) 15세 - 靑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 : 효종대왕의 둘째 딸 淑明公主에 장가들어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오위도총 부도총관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세 차례 다녀왔으며 글씨에 능했다.

15) 16~17세, 父子 화가 **심정주와 심사정**(沈師正, 1707~1769) : 심사정의 그림 중에서 ‘딱따구리’ 그림이 걸작이라고 載求 총무이사께서 귀뜸하신다.



심정주 - 목포도도      심사정 - 딱따구리

심사정은 명문 사대부 출신 이면서도 조부의 科獄과 연인 군(延初君:영조) 사건으로 가세가 기울어져 과거나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일생 동안 畵業에 정진하여 역사에 이름 높은 大家가 되었다.

16) 22세 『四賢實記』를 저술한 石田 沈繼澤 (1851~1930) : 다수의 저술을 통하여 현조를 빛내고, 옥

과심씨의 위상을 높였다. 이분의 고손자가 현재 글씨로 잘 알려진 沈愚慶 선생이다.

17) 그밖에도 조선의 대문장가 沈暻과 『自著實記』를 저술한 아들 沈道壽, 실천적 실학의 대가 沈大윤이 있다.



심종익·심명구 송덕비 용인 양혜공 묘소 부근

18) 23세 沈鍾益 (1899~1979), 오늘의 인수부윤공파를 존재케 하고, 청송 심문의 자존심을 지켜내다 : 공은 청송 심문의 역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으니, ① 『무술보(1972)』를 편찬하였고 ② 용인 양혜공 묘지 수호에 아드님이신 명구 회장과 더불어 공로가 절대적이다. ③ 서울 거여동 세장지에 모셨던 兵使公(安仁) 등 66위의 선조들을 망세정공 묘역으로 천장하는 대역사에 많은 사재를 들여 마무리 하였다

(1978.10~1979.4).

초기 소식지인

『靑松報』 15호(1956년12월) 25쪽을 보면 공의 위토 수호 노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이 위토는 일제 시에 불법강매당한 것으로서(...) 지금 인천에 계신 鍾益氏는 각 회원을 손수 순방하면서 진정서에 날인을 받고 있는데...”



천장한 남양주 양지리 묘역 (망세정공 묘역 옆)

19) 24세 전 대종회장 沈明求 (1922~2008), 청송 심문의 화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다 : 鮮光公社를 창립하였으며, 29년 간 대종회장 역임하면서 『경진보(2002)』를 발행하였다. 위토 수호는 물론 오랜 세월 분쟁 중이던 파주 분수원의 山訟을 마무리하였다. 공께서 대종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있음을 후손과 종인들은 오래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

20) 4선 국회의원이면서 인수부윤공파 종회장인 沈正求, 전 서울대 경영대학장 沈炳求, 민선 울산광역시시장과 두 번 국회의원을 지낸 沈完求 등이 당대의 저명한 名士이다.

8. 파종회 시향일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음 표와 같습니다만, 파시조이신 인수부윤공의 시향은 년 1회 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의 2세조 봄철 시향 때, 귀경길에 인수부윤공의 묘소에 들러 간단한 주파포만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世祖, 春(陰), 秋(陰) and rows listing ancestors and their dates.

9. 재각을 건립하여 큰 숙원 사업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양혜공 묘역에 재각을 건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10. 인수부윤공 종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 망세정공에서 여러 줄기가 뻗어 나와 만사상공이라는 큰 꽃 봉우리를 키우고 수많은 인재가 용암처럼 분출한 인수부윤공파. 선조님들의 덕행과 지혜를 본 받아 이 나라와 가문에 크게 기여 할 동량이 계속 출현하리라 믿는다. 곡성 함허정에 있는 심계택 공의 시 한 수로 인사를 대신한다.

원컨대 후손들이여, 잘 지켜준다면 대대로 이어온 효행과 우애를 만년토록 이어 가리라.

필자 : 심재석 박사(종보편집위원)

안효공파종회 단오절사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2019년도 안효공(安孝公 諱:濫) 단오절사 봉행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가.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전10시 : 단오절사 봉행, 11시 : 정기총회 개최>
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안효공 묘전 및 재실)
다. 주요내용(부의안건)
1.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8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3.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4. 2019년도 수지예산편성 승인의 건
라. 기타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종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31-253-8060, 253-8040, 팩스031-254-8066)

2019년 5월 31일
靑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茂 燮

각종찬조현황 2019. 3. 26 ~ 2019. 5. 23

Table of donation records for 19th and 18th years, listing donor names, amounts, and locations.

Table of additional donations (중보찬조) with amounts and donor names.

Table of additional donations (중회 찬조금) with amounts and donor names.

Information about the 500,000 won photo exhibition, including names of organizers and dates.

청송심씨 대전세종충남지구종회 총회 개최

지난 3월 30일 11시 대전뿌리공원 앞 장수 마을에서 대전세종충남지구종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심현근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송조돈목의 정신아래 뿌리를 알고 선조님의 음덕을 기리며 종인들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부탁하였다.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3일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정기총회가 183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무석 총회장과 훈, 천석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신임 진호 총회장과 신임 감사, 이사의 선출이 있었다.

임원개선 명단

총회장: 진호 / 감사: 형주, 광석

이사: 원필, 상훈, 정석, 형석, 영호, 충현

종묘대제



영녕전: 2019년 5월 5일 오전10시 , 정전: 오후2시 서울 종로3가 종묘

명종대왕 妃 인순왕후: 아현관 - 심재광 (안효공종회 감사)/ 세종대왕 妃 소헌왕후: 아현관 - 심홍섭(군수공파종회 회장)

부고



심의락 대종회 명예회장 별세

지난 4월 5일 제4대 대종회 회장을 역임하신 심의락 (악은공) 명예회장께서 속환으로 별세하셨다.

송금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웹진(인터넷신문) 접속방법 안내

대종회에서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종회소식, 종회원 활동, 각종 공지사항 등을 더 빠르게, 더 많은 종회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종보를 개발하게 되었다.

인터넷종보는 대종회 소식, 행사, 종회원 동정, 지파종회 소식 등 각종 종회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다소 미흡하지만 점차

개선해 가면서 시대에 맞는 메신저가 되도록 할 것이다.

청송심씨대종회 웹진(인터넷신문) 접속방법으로는

PC접속 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news.csshim.or.kr>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는 검색창에

[m.csshim.or.kr](http://m.csshim.or.kr) 로 하면 볼 수 있다.

제 569주기 영릉 世宗大王(세종대왕) 기신제

2019년 4월 8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영릉)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왕 기신제를 지냈다.

세종의 妃 소헌왕후 심씨의 후손 50여명도 이날 봉행에 참석하였다.

아현관: 심상경(서울)



청송심씨 六世祖 恭肅公(휘 滄)派宗中 제7회 정기총회 개최

2019년 4월 9일 11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공숙공 재실인 덕선재에서 제7회 공숙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충택 공숙공종회장은 종회 발전에 기여한 7명에게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며 송조돈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데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청송심씨 부산종회 정기총회 개최

5월 18일 부산종회에서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가분들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회장 : 재덕 / 총무이사 : 태섭



심우경 고려대 명예교수

「심청 효도문화연구원」 창립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14시

장 소 : 곡성군 옥과면 월파기념관

목적 :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상실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에 효도 교육을 통해 전통의 맥을 잇고, 한국의 효도사상을 널리 알리며 인간의 근본 도리를 되찾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립

공지사항

1) 청송심문 지·파종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파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종회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종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파종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종회에 즉시 통보요망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화목한 가족의 고향 나들이

청주에 사는 광택 일가는 삼대가 모인 가족여행으로 우리 심문의 고향인 청송을 방문하여 시조 할아버지의 묘역에 참배하고 만세루, 찬경루, 송소고택 등을 돌아보며 뿌리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느끼고 돌아갔다.



※ 십여년 전부터 계속 되어온 대종회를 사칭하여 책을 판매하는 전화사기가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씨명현보감' '족보' 라는 제목으로 강매를 하고 20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대종회에서는 먼저 전화하여 책을 판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